

# 지방 누르자 수도권 아파트값 '펄펄'... 상승률 6개월 새 최고

부동산원 새해 첫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 공표  
서울 31주째 상승... '규제 확대' 지방은 상승세 둔화  
비수기 전셋값 고공행진 지속... 서울 80주 연속 올라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26%로, 지난해 6월22일 0.28% 이래 최근 6개월(28주) 새 최고치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2019년 8월26일 이후 이번 주까지 7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23일 이후 7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0.15→0.16→0.18→0.20→0.22→0.23%)되고 있다.

서울은 0.06%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까지 31주 연속 오

름세다. 서울 동남권, 이른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번 주도 0.10% 상승했다.

송파구(0.11%), 강동구(0.11%), 서초구(0.10%), 강남구(0.09%) 등에서 주요 신축 단지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 외곽 지역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도 마포구(0.10%), 광진구(0.09%) 등 지역에서 선호 단지나 역세권 단지 등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도 이번 주 0.37% 올라, 지난주(0.32%)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양주시(1.44%), 고양시 덕양구(1.25%), 동두천시(0.81%), 의정부시(0.66%) 등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도로 개통 등 교통개발 호재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1.21%)·일산동구(0.64%), 남양주(0.67%), 성남 분당구(0.46%) 등도 역세권이나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0.26→0.27%)도 상승폭 낮았던 단지 위주로 지속 상승세 보이고 있으며, 서울 7호선 개통예정인 부평구(0.23%) 등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이번 주 0.28% 올라, 지난 주(0.33%)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48%), 부산(0.45%), 대전(0.37%), 대구(0.34%), 경남(0.30%), 경북(0.28%), 제주(0.26%), 세종(0.24%), 강원(0.24%) 순이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집계돼, 2주 연속 상승 폭이 소폭 축소(0.29→0.28→0.27%)됐다.

전셋값은 이사철 종료에 따라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23% 올라, 지난주(0.29%) 대비 축소됐다.

서울은 0.13%, 수도권은 0.23%로 전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서울은 80주 연속, 수도권은 7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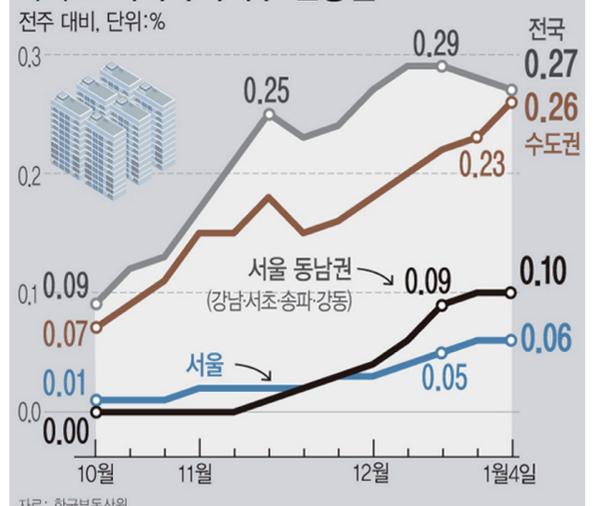
서울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 있거나 교통·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포구(0.19%), 용산구(0.19%), 서초구(0.18%), 송파구(0.17%), 강남구(0.16%), 은평구(0.15%), 노원구(0.14%), 강동구(0.14%), 성동구(0.13%) 등 순으로 높았다.

반면 수도권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0.25→0.26%)은 전셋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

양주시(0.49%), 고양시(0.63%), 남양주시(0.42%), 의왕시(0.34%) 등에서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은 0.33% 올라 지난 주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0.35%) 대비 소폭 축소됐다. 지방도 상승 폭이 축소(0.35%→0.30%)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78%), 울산(0.57%), 대전(0.50%), 부산(0.39%), 강원(0.34%), 대구(0.29%), 충남(0.29%), 경남(0.22%), 제주(0.22%)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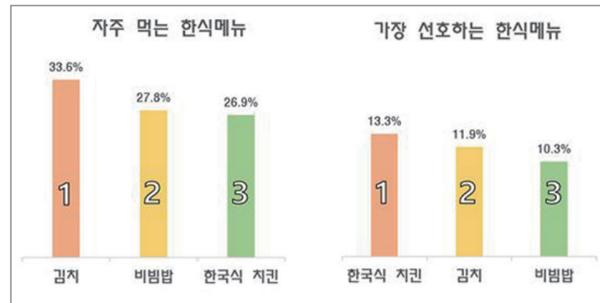
뉴스



이마트, 제주산 참조기 할인 판매  
7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 수산매장에서 모델들이 제주산 참조기 할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9년만에 돌아온 참조기 품어에도 재고 급증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제주산 참조기(해동)를 판매한다.

## “한식 가장 좋아하는 해외 도시는 상하이... 자주 먹는 건 김치”

정부, 해외 주요 16개 도시 소비자 대상 조사  
한식 만족도 1위 도시는 상하이... 최하는 로마



해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우리 음식은 '한국식 치킨'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였다.

해외 주요 도시 가운데 한식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중국 상하이였다. 반면 만족도 최하위는 이탈리아 로마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8~9월 해외 주요 도시 16곳의 현지 소비자를 대상

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가장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꼽혔다. 이어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음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이었다.

선호하는 한식은 지역별로 달랐는데 북중미에선 불고기(12.8%), 유럽

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인기가 높았다.

해외 도시들 가운데 한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상하이로, 만족도가 91.9%에 달했다. 이어 중국 베이징(9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90.3%) 순으로 높았다.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았던 곳은 이탈리아 로마(56.1%)였다.

한식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베이징(86.4%)이었다. 반면 인지도 최하위 도시는 일본 도쿄(23.8%),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24.4%), 로마(33.8%) 등 3곳이 꼽혔다.

또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의 57.4%로 작년 54.6%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 현대카드, 할인 혜택 강화한 'MX 부스트' 시리즈 출시

연회비 3·6·9만원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M'과 '현대카드 X'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 '현대카드 MX 부스트(BOOST)'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카드 MX BOOST의 가장 큰 특징은 적립 및 할인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온라인 간편결제와 해외 가맹점 특별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모든 가맹점에서 쓰면 쓸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카드를 많이 사용한 고객에게는 보너스 리워드까지 제공한다.

현대카드 M BOOST는 현대카드 M·M2·M3 BOOST 3종으로 구성됐다. 월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가맹점에 따라 0.5~3%의 M포인트 기본 적립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월 100만원 이상은 0.75~4.5%가 적립되고 M3 BOOST는 월 200만원 이상 사용하면 1~6%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이용하거나 해외지구 등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M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카드 X BOOST는 X·X2·X3 BOOST 3종으로 구성됐다. 월 50만원 이상 사용 시 1%, 월 100만원 이상 사용 시 1.5% 할인 혜택을 준다.

X3 BOOST는 월 2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1만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X BOOST 시리즈 역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해외

가맹점 결제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MX 부스트 상품들은 자신이 취향에 맞춰 카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 12가지 디자인 옵션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현대카드 M·X BOOST와 현대카드 M2·X2 BOOST, 현대카드 M3·X3 BOOST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3만원·6만원·9만원이다.

## LGU+, 'U+카카오톡프렌즈폰4' 출시... 자녀 보호기능 강화

초등생 전용 스마트폰... 유해 콘텐츠 관련 보호 등 안심기능

LG유플러스는 자녀 보호기능을 강화한 초등학생 전용 스마트폰 'U+카카오톡프렌즈폰4'를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8일~14일 사전판매행, 15일 정식 출시한다.

지난해 1월 출시한 U+카카오톡프렌즈폰3에 이어 1년여만에 후속 모델로 선보이는 U+카카오톡프렌즈폰4는 초등학생 전용 스마트폰이다. 보호자용 앱을 통해 자녀 단말과 페어링하면 자녀 위치조, 자녀 휴대폰 사용 관리 등 자녀 보호 기능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안심지역 설정, 자녀위치 확인 등 기존 위치조회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어 이번 모델에서 ▲자녀 이동 감지 시 보호자 알림 ▲자녀 이동경로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U+카카오톡프렌즈폰3부터 추가된 ▲로드뷰 기능은 보호자가 자녀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녀 휴대폰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이번 모델에서는 ▲데이터·와이파이를 차단하거나 보호자가 허용한 앱 외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화면을 잠그는 등 보호자가 아이 일과에 맞게 10분 단위로 간편하게 스마트폰 모드를 설정해 관리할 수 있는 '바로 모드' ▲자녀와 약속과 보상을 정하고 앱 내에서 스티커를 모으는 '칭찬스티커' 기능을 신규 제공한다. 자녀 앱 사용 시간과 사용 가능한 앱 종류 및 일정 관리 등 기존 기능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웹사이트 차단과 앱 사용 제한 등 기존 유해 콘텐츠 관련 자녀 보호 기능에 이어, ▲스마트폰 화면 캡처를 방지하는 캡처 차단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된 URL 실행 차단 ▲이미지·URL·유해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 수신 시 보호자 알림 등 신규 기능을 탑재했다.

U+카카오톡프렌즈폰4는 인기 초

등교육 콘텐츠를 모은 'U+초등나라(월 2만2000원)', DK, 핑균펜딩하우스, Oxford 등 세계 유명 출판사의 영어 도서와 한국어로 된 뽀로로, 과학도서 등 3D AR로 제작된 독점 제공하는 'U+아이들생생도서관(월 5500원)' 등 LG유플러스의 차별화된 어린이 특화 교육 콘텐츠를 풍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App.)이 탑재돼 있다.

이번 모델은 삼성전자 갤럭시 A10e KIDS(3GB) 모델을 기반으로 '키워플러스'와 협업해 제작된 LG유플러스 전용 모델로 카카오톡프렌즈 캐릭터 테마가 탑재돼 있다. 색상은 화이트 1종이며, 출고가는 25만1900원이다. 제품은 오는 15일부터 전국 LG유플러스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유심에서 구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출시를 기념해 모든 구매고객 대상 올해 11월 30일까지 월 5500원의 'U+아이들생생도서관'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하며, 정식 출시에 맞춰 별도 고객 혜택과 기념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